

화려한 색채에 숨은 약자의 분노

하산 하자즈 아시아 첫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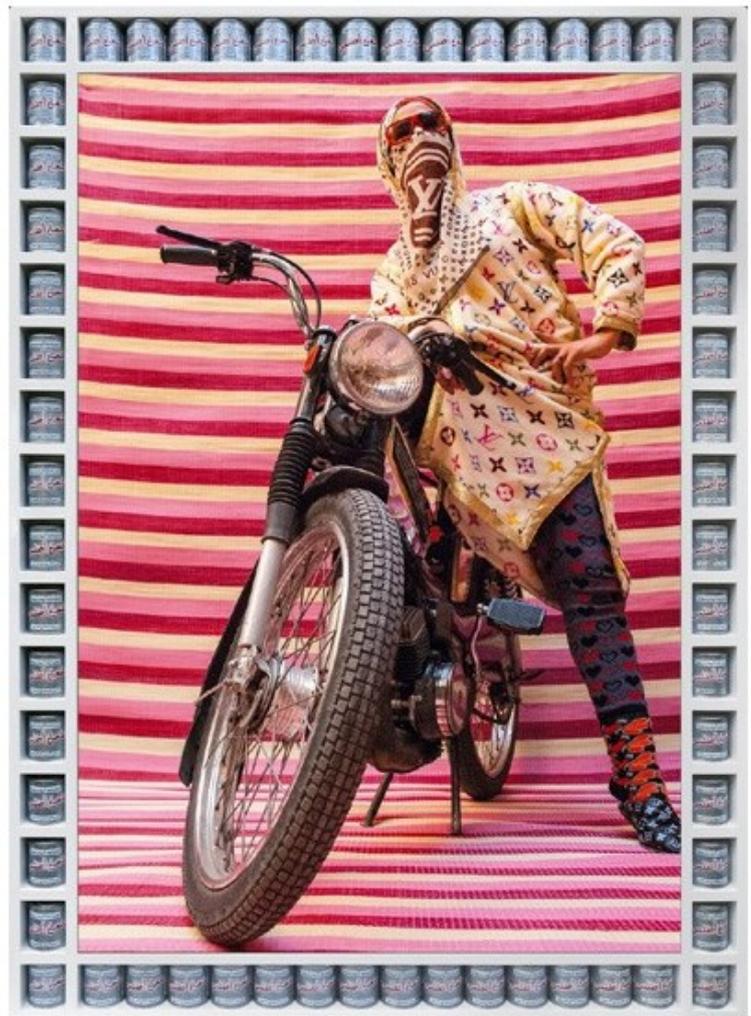
모로코 출신에 영국의 사진 거장
마돈나 · 패리스힐튼 등 톱스타도 추앙
바라캇 컨템포러리서 9월까지

전지현 기자 | 입력 : 2020.08.06

머리부터 발끝까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제품을 걸친 여자가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있다.

사진 거장 하산 하자즈(59)의 작품 `L.V. Bikin` 속 부조화는 그의 고국인 모로코로 설명된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교두보이자 명품 브랜드 짝퉁이 시장에 널려 있는 곳이다. 특히 루이비통 로고가 가장 흔하며 명품인지도 모른 채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형편이 넉넉치 못해 음료수 병과 통조림 캔, 타이어, 장난감까지 재활용해 쓰는 나라이기도 하다.

모로코에서 태어나 10대에 영국으로 이주한 작가는 짝퉁과 재활용, 화려한 북아프리카 전통 문양, 1970~80년대 런던에서 접한 거리 음악과 패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뒤섞어 정체성을 표현한다. 국경을 초월한 혼합 속에서 고급 문화와 하위 문화의 경계는 무의미해진다.



△`L.V. Bikin` [사진 제공 = 바라캇 컨템포러리갤러리]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하자즈는 1970년대 후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RAP을 론칭하고 힙합과 레게 등 흑인 음악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영국 내 대안 문화를 이끌어나갔다. 이민 2세대로 인종 차별을 겪던 작가는 1980년대 모로코를 여행하면서 북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서구의 편견을 허물기 위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인을 중심으로 세운 사진, 영상, 퍼포먼스 작업을 시작했다.



△하산 하자즈 개인전 전경

서울 삼청동 바라카트 컨템포러리에서 열린 그의 첫 아시아 개인전 `다가올 것들에 대한 취향`은 깜짝 놀랄 정도로 현란한 색채와 독특한 사진 이미지의 향연이다. 전시장 바닥과 벽면까지 온통 아랍어 `깨어나라`를 쓴 안내 표지판과 낙타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갤러리 자체가 하자즈의 작품이 된 것이다.

왜 마돈나가 모로코까지 달려가 60세 생일 잔치 사진을 부탁했는지, 가수 빌리 아일리시와 배우 윌 스미스·제시카 알바·패리스 힐튼이 그를 추앙하는지 알 것 같다. 눈이 번쩍 띄일 정도로 화려한 색채와 무늬로 둘러싸인 피사체는 초라할 틈이 없다. 휘황찬란한 배경 속에서 인종, 여성, 계층 갈등은 사라지고 그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존재한다.

뉴욕의 요리사와 무술인, 재즈 음악가, 문신을 하는 모로코 여성들을 현란한 색채로 감싸줄 뿐만 아니라 액자들에 공간을 만들어 그들과 연관된 토마토 소스병, 통조림 캔, 모로코 전통 모자이크 타일 등으로 장식해준다. 패션 잡지나 힙합, 무술 공연처럼 `아래에서 위`로 촬영하는 사진 구도를 적용해 인물들을 당당하고 활기차게 표현했다.

사진 속 인물들 일부는 루비비통 소재에 나이키 로고를 붙인 모로코 전통 신발 바부슈를 신고 있다.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신발로 한 때 루비비통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콜라보(협업) 제안을 받고 있다.

모로코 좁은 골목길에서 히잡을 쓴 여인들이 오토바이를 탄 채 도발적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 작품 'Henna Angels'는 아랍 문화에 대한 서구의 편견을 꼬집는다. 그들은 더 이상 히잡 속에 자신을 숨긴 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며 강렬한 눈빛으로 쏘아붙인다.

전시장 2층에 걸린 영상 작품 'My Rockstars Experimental II'는 동명의 사진 연작에 등장하는 예술가 9명이 각각 모니터에서 노래와 춤, 악기 연주를 펼친다. 미국 LA카운티뮤지엄(LACMA), 구겐하임 아부다비,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가 소장한 작품이기도 하다.



△하산 하자즈 부티크

그 앞에는 작가가 모로코와 영국에서 운영하는 부티크를 재현해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바비 인형, 재활용한 판지 위에 프린트된 하자즈의 사진 작품, 엽서, 티셔츠 등 직접 디자인한 물건들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다양한 문화적 취향의 공유와 소통을 강조하는 작가다. 코로나 시대에 서로를 보살피며 나아가자는 포용적인 세계관이 잘 드러나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9월 27일까지.